

회향 발원문

시방삼세 두루하신 부처님전에 발원하옵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중흥과 국난극복을 염원하는
만행결사 자비순례를 원만성취 하였습니다.

동화사에서 봉은사까지
사부대중 모두가 500km를 걸어
길 위에서 먹고, 길 위에서 자며,
국민의 아픔과 고통에 가까이 다가서는
보살행원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불보살님의 가피와 역대조사님들의 보살핌으로
여법하고 무탈하게 순례를 마치게 되어 감사드리웁니다.
가까이에서, 멀리에서, 지원하고, 격려하고, 박수를 보내주신
도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참 대중 모두는
이 나라의 아름다운 가을을 지나오면서
불국토가 지금 여기에 있기를 발원하였나이다.
코로나 19 전염병으로 고통 받는 이 땅에도
불자도반들이 함께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불국정토라는 서원을 세우고 또 세웠나이다.

이 원력과 신심이 널리 퍼지고 이어져서
한국불교 중흥의 힘찬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사부대중 모두는 부처님전에 엮드려 절하옵나이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